주민자치센터에 '미니 도서관'

동구청, 교육 공동화 해소위해 건립키로

광주시 동구 각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 도서관 등 '미니 도서관'이 건립된다.

동구청은 9일 "올해 안에 7억5천만원을 들여 계림1동과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센터에도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조만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도서관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구 청소년 교육 특구 10대 핵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적의 작은 도서관 건립운동'은 최근 출범한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함께 동구의 교육 공동화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올바른 교육환경은 선진 자치구의 필수조건"이라며 "어린이 도서관 건립운동을 통해 동구가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합니다"

북구청 '해피콜 서비스' 운영

광주시 북구청은 9일 "민원 처리 후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해피콜(Happy-Call)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7일 이상의 단순·복합 민원(등록·승인·신고·신청·인가·허가 등)에 대해 ▲친절성 ▲전문성 ▲편의성 ▲청렴성 ▲불편·개선사항 등 총 5개 항목의 만족도를 전화로 확인한 뒤 개선대책을 찾는 고객만족제도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북구 자원봉사센터 해피콜 도우미 3명은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차례 이상 만족도 조사를 벌여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조사된 고객의 불편사항 등은 매월 말 해당부서에서 재검토한 뒤 개선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매 분기별로 분석결과를 종합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만족 시책을 운영해 고품격 고객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시민 40명중 1명 지난해 119 이용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시민 40명 가운데 1명은 119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각종 위급상황에서 119구조대를 이용한 사람은 2천307명(1일 평균 6.3명)이며,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은 사람 3만2천453명(1일평균 88.9명) 등 총 3만4천760명이 119를 이용했다.

사고종류별로는 승강기사고가 92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뒤로 실내 갇힘 610명, 교통사고 290명, 화재 126명, 산악 사고 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인 일자리 크게 늘린다

市, 올해 3,832명 모집…지난해보다 58% 증가

광주시가 올해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광주시는 9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을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58% 늘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이달 중에 구청·동사무소·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노인회 취업센터 등을 통해 공익형·교육복지형·자립지원형 등 3개 분야 3천83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천424명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이다. 예산도 지난해 32억원에서 올해 54억원으로 늘었다.

공익형 참가자는 거리·환경지킴이, 불법주정차 계도 등을 맡게 되며, 교육복지형은 교육강사 파견, 숲 생태해설, 거동 불편자 돌봄이,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담당한다. 자립지원형은 주유원, 매표원, 식당보조원, 지하철 택배, 스팀 세차 등에 투입된다.

참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일 4시간씩 주 3~4일 근무하고, 임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받는다.

시는 1월 중에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2월에는 참여자를 교육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행으로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참여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9일 광주공원에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광주시는 이들 노인들을 위해 올해 54억원을 들여 3천83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결식아동 식권 79%가 분식·중국집

식단 편중…영양 불균형 우려

광주의 결식아동 중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제공한 식권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지만,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대부분이 분식집이나 중화요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의 일선 구청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 동안 무료급식을 받는 아동은 7천69명이다. 이중 식권을 받는 학생은 ▲남구 1천949명 ▲서구 1천41명 ▲광산구 905명 ▲북구 453명 등 모두 4천348명으로 61.5%에 달한다. 또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209곳 가운데 분식집이나 중화요리점은 164곳으로 전체 78.5%를 차지했다.

식권 사용처가 분식집이나 중화요리점으로 편중된 것은 결식아동 끼니당 단가가 3천원에 불과한 탓에 일반 식당이 식권 사용처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편중된 식단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심각한 영양불균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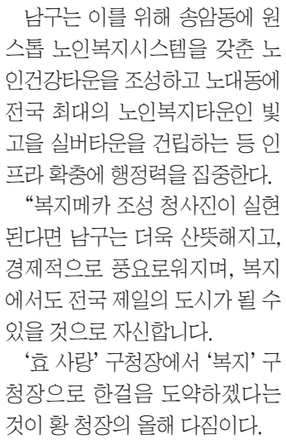
서구청 관계자는 "끼니 단가가 최소 4천~5천원은 돼야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구청장 새해 청사진

백운·봉선·효천 3대축 육성 살기좋은 '복지 메카' 탈바꿈

황 일 봉 남구청장



"올해 남구는 효사랑 브랜드로 원스톱 노인복지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는 황일봉〈사진〉 광주 남구청장의 포부다. 금년엔 남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청사진을 수립, 남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복지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이를 위해 백운지구와 봉선지구,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한 3대 축을 중점육성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

그는 우선 백운지구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심상권으로 가꾼다는 복안이다. 백운고가를 철거, 3~4개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보훈병원 부지 등에 구 청사를 이전하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정부투자기관을 유치하는 계획도 무르익고 있다.

황 청장은 또 봉선지구의 경우 유비쿼터스 교육·문화도시와 광주 최고의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남구문화예술회관과 유안근린공원 등을 기반으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황청장은 이와 함께 "효천지구·진월지구 100만 평을 개발해 환경 친화적인 웰빙주거단지, 상업과 유통 교육 중심의 신도심으로 육성해 나주에 조성중인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취임 이후 중점 추진해온 효사랑 실천사업도 계속한다. 효사랑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다각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 노인복지 확립

남구는 이를 위해 송암동에 원스톱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춘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하고 노대동에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타운인 빛고을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복지메카 조성 청사진이 실현된다면 남구는 더욱 산뜻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며, 복지에서도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효 사랑' 구청장에서 '복지' 구청장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는 것이 황 청장의 올해 다짐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